

# 광양중앙도서관,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 주력

## 생성형 AI 교육·미디어 창작 지원·전자책 기반 독서환경 강화

광양시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시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광양중앙도서관이 지역 대표 디지털 문화 플랫폼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광양시는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청년 친화 도시 조성 등 미래지향적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도서관 또한 지역 주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으로 시정 방향을 뒷받침하고 있다.

광양중앙도서관은 특히 세대별·맞춤형 디지털 독서 환경 제공,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미디어 창작 생태계 조성, 생성형 AI 교육을 통한 미래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 생성형 AI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광양중앙도서관은 취업 준비와 자기 계발에 대한 청년층의 수요 증가에 따라, 상·하반기에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특히 「챗GPT 전자책 창작소」를 통해 참여자에게 챗GPT 유료 계정을 지원하고, 이를 활용한 전자책 창작 및 출판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총 8권의 전자책을 제작·출판했다. 출판된 도서는 주요 온라인 서점

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하고, 광양시립도서관 소장형 전자책으로도 구비해 시민들이 대출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챗GPT 활용 교육을 오전반과 야간반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인공지능 활용 능력 자격증 과정을 병행해 청년과 시민의 AI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생성형 AI 아카데미 과정으로 '나만의 AI 콘텐츠 만들기' 수업을 운영해, 참여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 기획과 제작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 미디어창작실 개방을 통한 시민 참여형 창작 생태계 조성

중앙도서관 2층에 자리한 '미디어창작실'은 시민 누구나 영상 제작, 사진 촬영,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창작 지원 공간이다.

고화질 카메라와 조명, 음향 장비, 전용 편집 프로그램 등 전문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한 사전 예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공간은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청년뿐만 아니라 직장인, 동아리, 취·창업 준비자 등 다양한 이용계층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 영상 편집 기술 교육, 챗GPT를 활용한 전자책 제작 교육 등을 함께 운영하면서, 미디어창작실은 단순한 장비 대여 공간을 넘어 시민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실습 중심 공



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앞으로도 미디어창작실을 중심으로 최신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교육을 지속 운영해 시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디지털 기반 독서 서비스 확대 운영

광양중앙도서관은 변화하는 독서 환경과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방식을 고려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 독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도서관은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독서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특히 청년층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 이용권을 청년 200여 명에게 지원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모바일 기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독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 큰 관심을 보였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3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책·오디오북 등 디지털 자료 이용 안내를 통해 시민들이 디지털 독서환경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광양시립도서관은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1월 30일 기준 소장형 전자책 1만 9,509종과 구독형 전자책 31만 4,423종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오디오북 서비스 '오디언'을 통해 1,049종의 오디오북을 제공하고 있으며, 영어 원서 이용자를 위한 오버드라이브 기반 영어 전자책 464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 순천시립도서관, 2025년 시민 중심 독서·문화 서비스 결실 도서관 육성발전 문체부장관상 등 수상

순천시립도서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시민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식·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 한 해 시립도서관 9개관의 이용자는 95만여명, 대출권수는 2백만여권에 육박했고 행사 및 프로그램에는 2만여 명이 참여하며 전국적으로 독서 인구 감소가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시민 독서 참여 확대와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이루어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립삼산도서관은 독서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로 '2025년 도서관 육성발전 유공' 다문화서비스 부문에서 문체부 장관상을, '2025년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유공' 국립장애인도서관 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순천시립삼산도서관은 '2025년 전라남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1위에 올라 지역의 기초 문화시설로서 도서관 본연의 역할 수행과 문화콘텐츠 확장을 함께 이뤄낸 새로운 도서관 모델을 인정받았다.

지역사회 연계 성과도 눈에 띈다. 순천

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청·도서관·학교가 협력해 학생 교육과정 내 독서교육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그 결과 28개교 1,920명의 학생들이 독서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시 관계자는 "2025년은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도서관으로 한 단계 도약한 해였다"며 "2026년에도 변화하는 독서 환경과 시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열린 문화공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립도서관은 2026년에는 독서의 '연결'과 '치유' 기능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청소년·성인·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부터 전 연령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콘텐츠까지 도서관이 지역 공동체를 잇는 소통의 장으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 담양군, 대나무공예의 어제와 오늘을 잇다

## 명인과 계승자 17인의 결실 '대숲 겨울 작은공방' 주제

담양군은 지역 내 대나무 공예인을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대나무공예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12월 18일 '2025년 하반기 대나무공예 명인·계승자 전수교육 성과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성과 점검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 1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한국대나무박물관 홍보관에서 전수교육 성과물 전시회인 '대숲 겨울 작은공방'을 개최한다.

'대나무공예 계승자'는 대나무공예 기능을 전수받고자 하는 자로 명인 또는 준명인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지정한다.

계승자들은 지정 후 5년간 전수 종목에 따라 각 명인으로부터 주 1회, 회당 8시간씩 대나무공예 제작 기법에 대한 집중 교육을 받으며, 연 2회 엄격한 성과 점검을 거치는 체계적인 이수 과정을 받게 된다. 담양군은 대나무공예 기능의 맥을 잇

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28명의 계승 이수자를 배출했으며, 2025년 12월 기준 8명의 계승자가 전수 교육에 매진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대나무공예 명인·준명인과 계승자 등 총 17명이 참여해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를 3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객들은 전통 대나무공예의 정교한 전승 과정은 물론,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담양 대나무공예의 생동감 넘치는 현재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 점검과 전시회는 대나무공예 전수체계를 견고히 하고, 명인과 계승자들의 1년간의 결실을 군민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대나무공예 전통 기술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전남문화재단과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행복전남 문화회소 사업 '문화·작당모의-우정의 강진편' 추진을 통해 지역 청년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강진우정문화창작단'을 출범시키며, 지역 기반 협업 창작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문화·작당모의-우정의 강진편은 지역 청년, 농업인, 예술인, 재단 직원이 함께 참여해 배우고 실행하는 실습 중심 문화창작 사업으로, 단기 교육을 넘어 지역 안에서 지속 가능한 창작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이 사업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강진군과 전주시 일원 등에서

# 강진군 '강진우정문화창작단' 공식 출범

## 문화·작당 모의-우정의 강진편으로 시작

운영했으며, 지역 청년 11명과 재단 직원 4명 등 총 15명이 참여해 전원 수료했다. 참여자들은 오리엔테이션과 지역 탐색, 창작 멘토링, 타 지역 사례답사 등의 과정을 거치며 강진의 생활·농업·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한 협업 창작 프로젝트를 구체화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3건의 팀별 창작 프로젝트가 도출됐으며, 사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향후 공동

창작과 교류를 지속하기 위한 자발적 창작 공동체인 '강진우정문화창작단' 출범을 공식화했다. 창작단은 이 사업을 통해 형성된 신뢰와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을 소재로 한 창작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참여자들의 창작 기획 역량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재단 직원들이 기획·운영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지역 창작자 지원과 현장 중심 문화사업 운영

에 대한 실무 경험을 축적했고, 관련 성과는 향후 유사 문화사업 기획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김기태 대표이사는 "문화·작당모의-우정의 강진편은 함께 배우고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 관계와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었다"며 "이번에 출범한 강진우정문화창작단을 중심으로, 2026년 이후 후속 창작 교류와 지원 사업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062-525-9775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사업

**보다 나은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담·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